

나에게 주님은 애매한 친구인가 미쁘신 친구인가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얼마 전, 아들 결혼식을 위해 청첩장 봉투에 주소를 쓰다 보니 고민이 생겼다. 알리기도 그렇고 알리지 않기도 애매한 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머뭇거리던 중 친구로부터 원망 섞인 역정도 들었다. 본인은 지금까지 나를 돌도 없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들 자기 일처럼 가까이 축하해주었지만 청첩장이 고지서처럼 부담을 가진 분들도 있을까보아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미안함이 남는다.

누가복음을 읽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비유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그동안은 “너의 이웃이 누구냐?”로 알고 읽었던 대목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눅 10;36)”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묻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지를 물으셨다. 지금까지 나의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만 쉽게 생각했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나 나를 이웃이라고 여기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나의 친구가 누구인지 보다 내가 누구의 친구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청첩장을 보내며 고민했던 것처럼 혹 내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애매한 친구는 아닐까.

우리는 주님을 쉽게 ‘친구’라고 노래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 할 수 있겠나. 그것도 제자인 우리가 감히 선생님께, 하찮은 종이 감히 주인님께, 낮은 백성이 감히 높으신 임금님께 버릇없이 친구라 할 수 있겠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친구’라 하셨다.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요15;14-16)”라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노래 곡명처럼 우리의 THE BEST FRIEND,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가끔 우리가 ‘미쁘신 좋은 친구’를 애매한 친구로 여길 뿐이지.

1891년,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빌혼(Peter Philip Bilhorn, 1865-1936)은 시카고의 무디 선생 교회의 전도 집회에서 회심한 후, 이 집회의 음악인도자가 되었다. 집회를 위해 먼 도시로 자주 이동할 때 마다 덩치가 크고 무거운 오르간은 운반 때문에 큰 골칫거리였는데, 차량제조업이 전직이었던 빌혼이 이를 위해 간편한 이동식 오르간을 발명하였다. 내가 어렸을 적, 야외집회나 군용으로 많이 쓰인 접으면 가방이고, 펴면 건반이 나오는 사과궤짝 같이 생긴 빌혼 오르간(Bilhorn Brothers Organ)을 교회에서 본 적이 있다.

영어 찬송의 ‘Oh, the best friend to have is Jesus’는 우리말로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라고 번역하였는데, ‘미쁘다’란 말은 ‘믿음성이 있다’ ‘미덥다’, ‘진실하다’란 뜻으로 후렴에서 ‘예~수’와 ‘친~구’의 긴 박자도 ‘미쁘신’이란 시어(詩語)를 음미할 수 있는 좋은 음악적 표현이다.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원장